

수련병원 전공의 추가모집 저조...새 정부와 협상 노릴듯

전남대·조선대병원 지원자 미미
지원 현황 비공개, 신원보호 차원
인력난·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도

지역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마무리했지만 기대했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의 지원률이 저조하자 마감 기한을 추가 연장하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추가모집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인력난과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애초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27일까지 인턴 109명(별도 정원 3명 포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해 지난달 30일 추가모집을 마감했다.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년차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모집 공고의 마감 기한을 수정, 지난달 27일에서 29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레지던트 1년차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24개 과목에서 별도 정원 10명을 포함한 총 104명을 모집했으며 레지던트 상급년차는 지난해 정원 결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았다.

조선대병원도 인턴, 레지던트 추가모집 마감일을 지난달 28일에서 29일로 변경해 모집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9개 과목에서 레지던트 1년차 47명을 모집했고 상급년차는 작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았다. 인턴은 결원 정원 35명을 추가 모집했다. 광주기독병원은 지난달 29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년차를 각각 8명 추가 모집했으며 인턴의 경우 지난달 27일까지 16명을 추가 모집해 6명이 지원했다.

추가모집 마감 결과 전공의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병원 측에서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추가모집 마감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자가 극히 드물어 기존 마감일까지 충원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 병원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논란 방지를 위해 지원 현황을 비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료현장에서 복귀한 전공의들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모집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추가 모집에 합격한 전공의들은 다음 달 1일 수련을 개시하는데, 인턴의 경우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해 주기로 했다. 인턴이 내년 2월 수련을 마치고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 차는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군 미필자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가급적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대할 수 있도록 병역 연기 등을 복지부, 병무청 등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다수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수련 현장을 떠난 레지던트의 절반 이상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는 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추가모집 지원률이 저조한 이유로 전공의들이 자기 정부의 의료 정책을 지켜보며 복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 회장은 "이번 추가모집에서 전공의 지원률이 저조함에 따라 전문의 배출 차질은 물론 인력난에 의료공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며 "다만 의대생 유급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 없이는 복귀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며, 새 정부와 의대 정책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187명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남대 의대는 내년도 입학 정원 126명 중 78.57%인 99명을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기회균형전형으로 채운다. 조선대 의대는 신입생 정원 127명 중 69.29%인 88명을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한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오는 9월 중 원서 접수를 시작해 오는 12월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옛 상무대 영창 체험

지난 31일 광주 상무지구 5·18자유공원에서 열린 메이데이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옛 상무대 영창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교육청-지법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운영

중·고생 법률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광주지법 대회의실에서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은 시교육청과 광주지법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진로교육 사업이다.

현직 법관 15명이 참여해 15개 학교와 1대 1

매칭 방식으로 결연을 맺고, 올 연말까지 법률 분야 진로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법관이 학교를 찾거나 학생이 법원을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강연, 질의응답, 진로상담을 비롯해 멘토 법관은 멘티 학생들에게 재판의 형식과 절차, 법과 소통하는 법 등을 소개하며 법률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과 운영을, 법원은 법정

등 경연장소 제공, 현직 법관의 심사위원 참여 등을 맡아 올 하반기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관이라는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할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계약서류 간소화 행정업무 개선

전남도교육청이 1일부터 '계약서류 간소화'로 행정업무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발주기관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서류가 법령 제·개정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육현장과 계약업체에 큰 행정적 부담이 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계약관리 분과 청렴TF 협의회'를 열어 계약서류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12~20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에 따라 계약 상대

자가 제출하는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등 9종(입찰의 경우 5종)의 서식이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하나로 통합된다. 또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서 등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서면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도교육청은 계약 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학교와 기관이 교육 분야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전라남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FACT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제품 : 나이스3A, DE202-AW, DE202-AB 농기계 보조사업 기종, 농협용차, 농기계 보험, 면허증/번호판 없이 탑승가능



나이스 3A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B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W
(자동차 형식 핸들)



문의전화 061-352-3010

본사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제품정보 대풍이브이자동차 를 YouTube / NAVER 에 검색해 주세요!!